



정읍시 장애인복지관, 곡성서 특별한 하루 보내

정읍시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이용자들이 증기기관차 체험과 장미축제를 즐기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

복지관은 지난 23일 이용자와 직원, 자원봉사자 등 19명이 함께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을 방문해 지역사회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나들이는 증기기관차 탑승과 요술랜드, 동물농장 장미공원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일상 속 새로운 자극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들은 기차마을 내에서 섬진강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기차를 타고 과거의 향수를 느끼는 한편, 요술랜드의 놀이기구들을 체험하며 동심으로 돌아간 듯한 즐거운 오전을 보냈다. 오후에는 형형색색의 장미꽃과 조형 분수, 미로원, 파고다 등이 어우러진 장미공원을 산책하며 세계 장미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만끽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어우러진 테마파크 속에서 이용자들은 서로 장난치고 뛰어다니며 오랜만에 활짝 웃었다. 친구와 어깨동무하며 기차에 오르고, 장미꽃 앞에서 사진을 찍는 등 작은 순간마다 기쁨이 물었다.

복지관 관계자는 "이번 체험은 단순한 나들이를 넘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의 연대와 소통을 확장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포용적 사회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체험사업은 주간보호센터 이용자들에게 여가활동과 지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외부활동을 통해 장애인과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사회통합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순창 인계초,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출전

순창소방서는 인계초등학교가 순창군을 대표해 '제23회 전북특별자치도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에 참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대회는 어린이들이 동요를 통해 화재예방과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안전수칙을 익힐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다. 도내 15개 시군에서 각각 1팀씩 참가하며, 유치부와 초등부로 나뉘어 열띤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제23회를 맞은 이번 대회는 오는 6월 13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열리며, 총 15개 팀이 참가해 안전을 주제로 한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순창군 대표로 참가하는 인계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총 21명의 학생으로 구성됐으며, '불 끄는 방법'이라는 동요를 통해 화재 발생 시 대처요령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경아 지도교사는 "동요를 통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소방안전의 중요성을 배우고, 무대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희 기자



무진장 농어촌공, 천천저수지 환경정화 활동 등 진행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이양희)는 26일 장수군 천천저수지에서 장수군 의용소방대원, 수질환경보전회, 인근지역 농업인과 지사 직원 등 30여명은 저수지 주변 환경정화 행사 및 수질환경보전 협의회를 개최했다.

수질환경보전회는 지자체, 환경단체 전문가 및 수해지역 농민 대표 등 7명과 공사 직원 11명으로 구성돼, 농업용수 수질관리 방향과 역할 분담 및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날 오후에는 천천저수지에서 지사 수질환경보전회, 장수의용소방대, 지사 직원들과 함께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면서 1톤 불량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이양희 지사장은 "청정 농업용수 공급과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저수지 주변의 지속적인 환경정화 활동과 수질오염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북 스피치인 교류와 화합의 장’

제37회 전북 스피치인 한마음 축제 성료... 200여명 참석

제37회 전북 스피치인 한마음 축제가 지난 24일 완산체육공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사)한국스피치옹변협회 전북지부가 주최하는 스피치인 한마음 축제는 전북의 스피치인 교류와 화합의 장으로 상호 친목으로 우정을 쌓고 올바른 문화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매년 열고 있다.

행사에서는 이성운 국회의원,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부의장, 최주만 전주시의회 부의장, 김양욱 한국스피치옹변협회 전북 회장, 김종현 축제 위원장, 황금석 축제 자문위원장, 김기수·강정원 축제 지도위원장, 김연경 축제 진행위원장 등 내빈들과 도내 스피치인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개회식, 장기지랑, 고리 걸기, 축하공연, 재능발표, 행운권추첨 등으로 구성됐다.

장기지랑 부문 시상식에서 김보민(원광대 스피치 과정)씨가 대상을 수상받았다. 박형민(우석대 리더십 과정)씨는 최우수상을 수상받았다.



송선순(전북대 웃음코칭)씨가 우수상을, 최연실(우석대 스피치 과정)씨가 우등상을 수상받았으며, 김귀녀(군산대 스피치 과정)씨와 윤은숙(원광대 광광 노래 과정)는 장려상을 수상받았다. 선동신(과학대 스피치 과정)씨는 특별상을 수상받았다.

고리 걸기 부문 시상식에서는 우석대 스피치 과정이 1위, 광대 편 노래 과정이 2위, 전북대 웃음코칭 과정이 3위를 차지했다.

화합상 시상식에서는 우석대 스피치 리더십 과정이 대상을, 우석대 스피치 과제가 최우수상을 수상받았다. 함께 진행된 공로 표창장 수여식에서 신미자·정선우·정미순·박다감·박혜영·심하진·송순자·박형만·오이순·양계순씨가 공로 표창을 수여받았다.

김양욱 한국스피치옹변협회 전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스피치인 모두가 하나된 모습으로 서로 소통하고 호감받는 사람이 되어 풍요로운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고창교육지원청, 2025 상반기 입시설명회

최근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한숙경) 대회의실에서는 박상용 전주시새부고 교사(학생부종합전형팀장)를 초청해 대입전형을 위한 학생부 관리방안 을 주제로 입시설명회가 열렸다.

이번 설명회는 관내 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요소, 자기주도적 활동 관리, 교과·비교과 기록의 효과적 작성법 등 실질적인 학생부 관리 전략을 안내했다.

박상용 교사는 최신 대입 트렌드와 대학별 전형 특징, 학생·학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한편, 6월 4일 오후 6시, 고창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는 '2026 대입환경변화에 따른 수시지원전략'을 주제로 학부모 대상 입시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한숙경 교육장은 "이번 진학지도 지원 강화로 학생과 학부모의 진학 편의를 높이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농협은행 전북본부, 소양서초에 'NH그린액션' 제14호 실시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26일 소양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기후행동으로 건강한 지구 만들기'에 동참하는 'NH그린액션' 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조미현 농협완주군지부 지점장, 양승현 소양초등학교교장, 세이브더칠드런 김동관 서부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NH그린액션' 제14호 현판식을 갖고, 학교에 친환경 안전우산 35개와 우산가치대, 업사이클링 양말 200켤레 등을 전달했다.

NH그린액션'은 기후위기와 탄소배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농협은행전북본부와 세이브더칠드런이 함께 실시하고 있는 전북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이 교실 내 비치된 페플라스틱 수거함에 분리배출을 실천하고, 이것을 업사이클링하여 안전우산과 양말 등으로 제작 후 학교에 다시 전달한다.

소양서초 학생들은 업사이클링 양말 200켤레에 정성으로



쓴 손편지를 담아 인근 경로당에 전달하여, 나눔의 행복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조미현 지점장은 "우리 학생들이 분리배출을 실천하며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남원제일고 조리제빵과, 국제요리·제과경영 전원 수상

남원제일고 조리제빵과 학생 20명이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된 2025 KIOC 국제요리&제과경영대회에 참가하여 금메달 등 전원이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 경연대회는 한국조리협회가 주최, 농식품부 등 18개 정부 기관이 후원하는 대회로,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는 전국 최대 규모 행사이다.

수상은 △종합 대상(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상) 라영빈 하태영 최준환 이자윤 △종합 우수상(대회장상) 정다정 김예진, 세계요리 전시 △금메달 박서연 계수아 △은메달 노영신 김수민 디저트 전시 △금메달 김은지 하수민 정다정, 김예진 △은메달 유행복 윤별하 △동메달 오기연 이승희 라이브 코스요리 △금메달 라영빈 하태영 최준환 이자윤 △은메달 최강 배금희 김상순 강다현 학생이 수상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부안남초, 모내기 체험으로 생태·탄소중립 실천

부안남초등학교 교장 정한상은 최근 전교생 50여명과 늘푸른학부모회원 10여명, 교직원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부안 내요리 검장마을에서 모내기 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모내기 체험은 부안남초등학교가 탄소중립 실천학교로 운영되면서, 학생들의 삶과 직결된 마을과 함께 마을교육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학교는 마을 주민들과 손을 잡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환경 감수성과 공동체 의식을 키우고자 노력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남원 도통동지사협, 동해수산에 착한가게 현판 전달

남원시 도통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소년자 등장, 민간위원장 김희만)는 지난 23일, '착한가게' 정기 기부금에 동참한 동해수산(대표 장봉준)에 '착한가게' 42호점 현판을 전달했다.

이는 '1일 1가구 소통행정'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와 기업이 함께 만들어가는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의 일부분으로,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게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나눔의 가치를 더욱 확산시키고자 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산동면, 찾아가는 이불세탁서비스 추진

남원시 산동면 행정복지센터는 올해 1월부터 1일 가구 소통 서비스 추진을 통해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불세탁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소통 서비스는 관내 독거노인,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거개선, 건강 측정 상담 제공 등 복지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현장 일선에서 시행하는 서비스로 관내 주민들의 좋은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세탁하기 어려운 보료, 두꺼운 이불 등을 수거하여 산동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세탁기를 이용해 세탁, 건조 후 다시 주민들에게 배송하는 향기가 피어나는 빨래방 운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